



귀차니스트



임연태
본지 편집부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선사(禪師)들의 살림살이는 극도의 간결함을 추구한다.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반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자라, 그 근원을 추구하는 선의 궁극에 도달할 수 없다. 때문에 선사들은 격외의 언어와 행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참 모습, 나아가 우주만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에 목숨까지 거는 것이다.

그런 수행의 단면들이 즐리면 자고 목마르면 차 마시는 ‘한가로움’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들의 정신마저 한가로움 것은 아니다.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공간에는 새로운 종족들이 영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귀차니스트. ‘귀차니+ist’의 합성 신조어를 간편으로 내 건 귀차니스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슬하게 생겨나는 ‘족류(族類)’의 한 갈래다. 그들은 늘고먹는 ‘백수’와는 전혀 다름을 표방한다. 일상에서의 행동반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을 행동수칙으로 삼는다. “침대에 골짜기 앉고 누워서 천장에 달린 전등을 끌 수는 없나?”를 화두로 생각하는 귀차니스트들이지만 만사를 방기(放棄)하지는 건 아님을 주장한다. 생각의 쉽고 움직임을 효율성이 삶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주느냐에 따라 진정한 귀차니스트와 가짜 귀차니스트가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살림살이가 그렇듯이.

귀차니스트와 그의 아류인 팬차니스트 족들의 등장, 사회의 다양화와 다변화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행동의 바른 지향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몇 주 전 세계적으로 무려 천만 명이 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 압박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곳 한국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더불어 반전을 촉구했다. 또한 만델라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인간방패로라도 전쟁을 막겠다면서 많은 사람이 현지로 모이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온 세계로부터 전쟁만은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왜 전쟁을 강행하려할까? 물론 그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국의 이익 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무조건적 관철은 파시즘적 발상이다. 남이나 남의 나라 또는 지구촌 전체의 이익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다면 그것이야말로 야만이다.

이라크와 관련된 미국의 국익은 안정적 석유 확보, 군사력에 의한 세계지배, 적을 설정함으로써 세계경찰 자임, 군사복합체의 돈벌이 등이다.

이라크 석유매장량은 2억 2000만 배럴로 미국의 수입량의 98년 치에 해당된다. 이를 미국이 온통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비는 클린턴의 2800억에서 2003년 3,790억으로 일년 사이에 거의 1천억을 올렸다. 2004년은 약 4천억으로 세계2위의 군사비 500억보다 8배 가까이 많

다. 이라고도 미국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또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기에 미국의 적이라는 북한 및 이라크와 미국 중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을 뽑는 CNN투표에서 미국은 세 배, 네 배의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진짜 악의 축과 ‘무법자’는 북한과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이다. 전쟁이라

불자 세상보기



강정구 교수
동국대 사회학과

지금은 평화의 햇불 밝힐 때

는 집단 대량살인을 통해, 그것도 핵무기까지 사용돼 돈을 벌려는 부시정부 고위층은 보통 살인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셈이다.

이 야만의 전쟁은 한반도 전쟁위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라크처럼 한반도 전쟁위기 역시 부시정권 등장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금의 북핵 파동은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미국이 북한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불가침조약만 체결하면 단숨에 해결된다. 그

런데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북한의 속수무책까지 완전히 벗겨야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세계의 반전 여론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야만의 제국에 대한 세계인의 승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승리가 한반도에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도 염연한 현실이다.

대량살상무기전쟁을 공언해온 부시가 막상 이라크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부시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승자박 된 부시는 화살의 방향을 북한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무력사용 절대불가를 다시 천명하고, 군부를 포함한 각 사회단체가 이를 재선언하면서 민중의 전쟁통제력을 높여 남북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의 반전 여론과 연대를 통해 제2의 전쟁 막기로 매진해야 한다. 지금은 평화의 햇불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야 할 때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포럼 ‘중도사상과 참여민주주의’ 토론회

자타불이·자비정신으로 참여민주주의 정착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 김연규)은 2월 26일 제24차 열린토론포럼 ‘중도사상과 참여민주주의’를 개최했다. 이날 순학재 교수(성공회대 정치학)는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 전제로 한 자비정신의 확산은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종욱 박사(동국대 강사, 불교철학)는 “불교민주당이나 불교사회당 등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손혁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개혁불사 통해
변화·요구 적극 수용

민주주의가 더디게 정착되는 것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와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에도 기인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기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自他不二) 점을 전제로 한 무조건적, 포괄적인 사랑인 자비정신의 확산은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나 혼자만 깨달음과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것을 염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구제를 추구하는 대승정신 또한 민주주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

현대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 상실의 시대라는 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인간 상실의 시대에 인간 중심의 종교인 불교는 인간을 인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 줄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지역·계층·성별·세대·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은 불교의 원융회통의 정신과 방편의 묘를 살리면 통함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다.

불교가 계속 상존에만 머무르면서 사회에 등을 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불교의 기본 교리는 고통 속의 중생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개혁불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중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생 구원을 위한 민주 정치를 이 땅에 꽃피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불교계가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욱
동국대 강사

불교민주당·사회당
결성 고려해야

현대 민주 국가에서 불교는 종래의 세속화가 아닌 새로운 사회화를 모색해야 하고, 그것은 사회의 구조 등을 깨달음의 성취에 합당한 배경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구조 등을 불교적 이상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불교민주당이나 불교사회당의 결성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무엇일까? 시민사회가 해방 지향의 자율 정치라면 국가는 간섭 지향의 통제 기관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시민사회 활동을 경력직 국가의 공직에 나가는 것은 자기 정당성의 부인이 아닐까?

시민의 정치 참여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중도(中道)다. 왜냐하면 어느 일방에 서 있는 자기 이익의 희생 없이 진정한 소통을 불가능하며,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 단순한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 관행의 합리화가 중요한 바, 이 때의 이성론은 계산적 이성보다는 중도적 이성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 반야 바라밀(般若波羅蜜)에서 그 반야의 지혜가 곧 중도의 지혜이며, 원융회통사상도 중도사상 이외의 것이 아니다.



홍성범
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정치참여 시대 흐름,
성직자 참여는 신중히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등 3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불 때 불교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는 시대의 흐름과 일치한다. 현재 정치판에서 정당 개혁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개혁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또 합리적 개혁세력이 부족해 개혁과 청산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불교가 사회나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개혁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불교민주당이나 불교사회당처럼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성직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종교의 정치 참여는 종교계 내부에서 진지한 토론과 고민 후 결정됐다가보다는 개인적인 결정에 좌우됐던 것이 현실이다.

성직자가 국회의원이자 장관을 지향점으로 삼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은 내부의 오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스님 산불 진화대’ 발족



단양 구인사 스님 21명이 2월 28일 산불진화대를 구성했다. 이들 스님들은 수도 생활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조동진화 및 뒷불 정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님들은 불갈퀴, 등집필프 등 산불진화 장비 40점을 지급받았다 한다. 3월에는 제천 정방사 신도들도 산불진화대를 조직할 계획이다. 불자들의 산 사량이 결실을 맺어서 올 봄에는 산불로 죽어가는 나무가 없기를 바란다.

장군축마

“국보를 지킨 대접 이래서야...”



지난 달 국보로 승격 지정된 <삼국유사 권3-5>의 소장자인 도해 스님은 요새 기쁘기는커녕 속이 끓는다고 한다. 지정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 지정서는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국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이처럼 느장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해 왔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소중한 유산을 지켜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상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나라와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가 생기기까지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 334-9490, 334-9491 야간: 031) 706-3060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교종본찰 봉선사

- 조 실 월운 해룡 총무국장 : 여산 기획국장 : 보인
회 주 밀운 부림 교무국장 : 환풍 재무국장 : 석봉
주 지 두산 일면 사회국장 : 성일 호법국장 : 자현
연수원장 : 무착
교구신도회장 : 이상현 신도회 총회장 : 김순경
신도회 회장 : 조관음행 거사림회 회장 : 조명동
어머니합창단 단장 : 팽성불수 산악회 회장 : 이감로하

봉선사 산하기관

연꽃유치원, 딸기원어린이집, 인창경로식당

학교법인 광동학원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광동여자고등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전화 031) 527-5974 팩스 031)527-1958